

남북 역사소설에 형상화된 ‘간도’의 심상지리적 인식과 심상지도*

임옥규(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이 논문의 목적은 남북 역사소설에 형상화된 장소 중 ‘간도’ 지역이 구축한 심상지리적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일제강점기 한민족이 처한 역사적 체험과 대응 양상이 장소를 통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또한 개별 역사소설 속 장소 이동에 따른 심상지도를 구축하고 간도 지역의 심상지리적 인식을 바탕으로 간도의 심상지도를 구현해 보고자 한다.

간도의 심상지리적 인식은 간도가 주요 공간적 배경이 되는 역사소설을 통해 분석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남북 역사소설인 『토지』, 『두만강』, 『북간도』 등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들 역사소설에는 장소 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등장인물들의 주요 활동 장소로 간도가 공통으로 등장한다.

남북 역사소설에 형상된 간도의 심상지리적 인식은 유형화해 볼 수 있다. 민족의 역사와 문화예술, 사상, 민족성, 사랑, 자유와 생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토지』, 탈식민을 위한 건국 서사를 선보이는 『두만강』, 간도로의 이주와 개척의 역사를 형상화한 『북간도』 등을 통해 간도의 심상지리적 인식을 분석해볼 수 있다. 남북 역사소설 속 장소를 중심으로 심상지도를 구축해보면 한민족의 이동 경로와 주요 활동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심상지도를 구상해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411-J03301).

있다.

주제어: 남북 역사소설, 간도, 심상지리, 심상지도, 『토지』, 『두만강』, 『북간도』

1. 서론

이 글은 역사소설 속 장소가 역사적 인물이나 주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텍스트의 담론을 형성하고 상호 텍스트성을 통해 구현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역사소설에서 장소는 삶이 구현되는 구체적인 토대에 해당되며 공시성과 통시성의 의미를 지닌다. 역사소설이 역사적 체험과 기록을 바탕으로 이를 재조직하여 문학으로 형상하였을 때 역사소설 속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장소 표상의 의미는 역사에 대한 해석의 지평을 넓혀주고 문학적 심미 기능을 향상시킨다.

체험과 기록의 소설화는 장소라는 기표를 통해 지리적 실체를 이미 지화하고 심리적으로 변형시키는 방법론을 보여주기도 한다. 여기에서 어떤 장소를 상상하거나 인식하는 것을 심상지리라고 할 수 있으며, 심상지리적 인식은 이념적 의미에서 개인과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해주는 요인이¹⁾ 될 수 있다. 이-푸 투안(Yi-Fu Tuan)은 인류학, 문학, 신학 등에서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수집하고 그 속에서 지리적

1) 김양선, “옥시덴탈리즘의 심상지리와 여성(성)의 발명: 1930년대 후반 소설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서울: 민족문화사연구소, 2009), 참고.

경험들을 추출하여 공간과 장소가 가지는 의미를 풀이한다. 투안은 공간과 장소를 환경을 구성하는 근본 요소로 보고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인간이 어떻게 세계를 경험하고 이해하는가’를 탐구한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미지의 공간은 친밀한 장소로 바뀐다고 한다.²⁾ 또한 인간의 장소는 극적으로 표현됨으로써 생생한 실체가 되고 장소의 정체성은 개인적·집단적 삶의 열망, 필요, 기능적인 리듬을 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성취된다고 한다.³⁾

이 논문에서 살펴보는 ‘간도(間島)’라는 장소는 조선시대 말기와 일제강점기⁴⁾를 다룬 역사소설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상징적 의미로 작용한다. 이에 관련해서는 근대 이후 로컬리티 위계의 탈구축과 심상지리의 형성의 과정은 ‘제국과 식민지의 체험으로부터 비롯한 지정학적 혼란으로부터 질서를 구축하고 공동체의 자기 정체성을 정의’하는 데에 반드시 거쳐야 했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것은 근대적인 의미의 민족주의의 형성 과정이기도 하다는 논의⁵⁾를 참고해볼 수 있다.

역사소설 속 장소는 다양한 심상지리적 인식을 통해 가시화될 수 있다. 특히 남북 역사소설에서 간도는 여러 가지 의미로 형상된다. 간

2) 이-푸 투안(Yi-Fu Tuan), 『공간과 장소』, 구동회·심승희 옮김(서울: 대운, 2011), 6~7쪽 참고.

3) 위의 책, 286쪽.

4) 일제강점기(1910~1945): 한일합방으로 대한제국(조선왕조)이 망한 이후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에 이르기까지 35년 동안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통치한 시기. 한국사사전편찬회 엮음, 『한국근현대사사전』(서울: 가람기획, 2005).

5) 구인모, “한국 근대사와 ‘조선’이라는 심상지리,” 『한국학연구』, 제28집(서울: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8), 84~85쪽.

도는 가난과 억압을 극복하기 위해 이주와 이산 체험을 하는 민족의 수난사적인 공간으로, 한편으로는 일제에 대한 투쟁과 민족의 공간을 확대하는 장소로 형상화된다.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남북 역사소설은 일제강점기를 다루면서 간도 지역을 주요한 역사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에 이 글은 간도 지역이 주요한 배경이 되는 남북 역사소설에서의 간도의 심상지리적 인식을 고찰하고 심상지도를 구축하고자 한다. 남북 역사소설은 대부분 장편소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대한 서사와 빈번한 장소 이동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주요 텍스트를 선정하고 대표성을 부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남북 역사소설 중 간도 지역이 주요한 장소로 등장하는 남한 역사소설 『토지』, 북한 역사소설 『두만강』, 남한에서 발표되었지만 재만 조선인 출신 작가의 작품인 『북간도』를 주요 텍스트로 선정하여 이 소설들의 심상지리적 인식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심상지도를 구축하고자 한다.

2. ‘간도’ 형상화한 남북 역사소설의 심상지리적 인식

개화기와 일제 식민시대를 다룬 남북 역사소설은 근대 전환기에 한 민족이 겪었던 수난사를 형상하고 있는데, 간도가 주요한 역사적 장소로 등장한다. 간도의 의미는 그 명칭의 역사적 유래나 지형적 특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으며 문학적 형상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

간도(間島)라는 명칭은⁶⁾ 두만강 중간의 종성과 온성 사이에 있는 삼

6) 간도되찾기운동본부, “간도역사,” <http://www.gando.or.kr/> 참고. 그 유래에 따라 감터, 간도(壘島), 간토(壘土), 간토(良土)·곤토(坤土), 간도(良島), 간도(間島), 알동

각주가 매우 비옥하여 1870년경부터 부근의 주민이 이곳을 개간하기 시작하면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무산, 온성 사이의 주민이 도강하여 백두산 동면 기슭의 비옥한 토지를 개간하고 이곳을 모두 일컬어 간도라 부르게 되었는데 한민족(韓民族)이 개간하였다 하여 간도(璦島)라 부르기도 하였다고 전해진다. 1909년 간도협약⁷⁾ 이후 간도 지역은 독립운동의 근거지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며, 독립군이 청산리·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대패시키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 강제 이주된 노동자와 농민들로 인해 간도 이주민이 대폭 증가하였다.

간도의 지리적 범위는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대체로 만주 동남부, 즉 현재 두만강 북쪽 연변(延邊) 조선족자치주에 해당하는 지역을 일컫는데, 주로 ‘북간도’라고 불려왔다. 그리고 백두산 서쪽의 압록강 이북 지역과 송화강(松花江) 상류, 압록강의 중국 측 지류인 훈강

(幹東)·간동(幹東), 가강(假江)·강통(江通) 등으로 지칭되어왔다. 간도에 대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원래 초기국가였던 읍루와 옥저의 땅이었다가 후에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가 되었다고 한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여진족이 머물면서 조공을 바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청나라의 봉금령(封禁令)으로 1677년부터 200년 동안 다른 민족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1864년 전후로 당시 학정과 궁핍을 피해 조선인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간도에서 발농사를 짓게 되고 1883년 조선서북경략사 어윤준이 북선 6진을 시찰할 때 월강봉금령이 폐지되어 조선인들은 압록강 중상류와 두만강 중하류에 합법적으로 이주한다.

- 7) 간도협약은 일본의 대륙 침략 계획을 위해 1909년 9월 간도 지방의 영유권을 청나라에 넘겨준 협약이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이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이 한국을 대신해 한국과 청국 간의 국경을 확정된 조약이다. 당시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남만주철도부설권과 무순탄광개발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의 한민족을 청나라 법률 관할하에 두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 결과, 협약에 직접적으로 간여하지 못했던 우리 정부는 불법적으로 영토를 빼앗겼다. 유수정, “잡지 『조선』(1908~1911)에 나타난 간도·만주 담론,” 『아시아문화연구』, 제19집 (서울: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0) 참고.

(淸江) 일대가 ‘서간도’이다.⁸⁾

한민족에게 ‘간도’의 의미는 무엇인지 문학적 형상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간도는 일찍이 식민지하에서의 궁핍과 비참을 견디지 못한 서해가 생의 최저요건을 충족시키고자 찾아들었지만 끝내 희망조차 찾지 못한 곳이자,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포석과 설야가 이념적 방랑을 했던 곳이었으며, 민족해방의 신념을 위해 육사가 생의 비극적 황홀을 맛보았던 곳이기도 했다. 그래서 간도는 한민족에게 결코 낯선 곳일 수 없었다. 때로 그곳은 이 땅의 비참한 땅이 연장된 지리적 장소이었으며, 때로 그곳은 실존적 완성을 위한 통과제의적 성격을 지닌 상징적 공간이었으며, 때로 그곳은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낭만적 비약이 가능했던 이념적 성소였던 것이다.⁹⁾

간도가 형상화된 남한 역사소설로 『토지』, 『아리랑』, 『야정』, 『혼불』, 『먼동』 등이 있으며 재외한인 문학의 특징을 보이는 『북간도』가 있다. 북한의 경우 『두만강』 역사소설과 총서 『불멸의 력사』 ‘항일혁명문학투쟁시기 편’과 <피마다>, <꽃 피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 등의 ‘항일혁명문예’가 있다.

북한의 역사소설을 살펴볼 때 항일혁명문학과의 연관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항일혁명투쟁이 북한의 역사와 문학예술에서 중요한 위상을 지니며 북한의 전통과 혁명 원리의 핵심으로 작용하기 때

8) 아리랑문학관 홈페이지 참고 <http://arirang.gimje.go.kr/>.

9) 김종욱, “유토피아와 역사, 그리고 현실: 김주영의 『야정』, 『작가세계』, 제31호 (서울: 세계사, 1996), 427~428쪽.

문이다. 그런데 북한의 역사소설을 분석하면서 항일독립투쟁의 장을 다루고 있는 항일혁명문학은 다른 층위에서 논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항일혁명문학에 대해 남한에서는 김일성의 역사에 대한 왜곡과 신화 만들기,¹⁰⁾ 김일성 중심의 편향된 기억의 정치화¹¹⁾로 해석한다. 특히 총서 『불멸의 력사』 ‘항일혁명투쟁시기 편’은 17편의 장편소설로 구성되어 있어 총서 자체만으로도 방대한 규모를 지녀 이에 대한 연구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¹²⁾ 또한 북한의 4·15문학창작단에서 김일성 중심의 항일혁명 역사를 창조·재현한 총서를 역사소설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총서 『불멸의 력사』가 ‘간도’에 대한 북한의 심상지리적 인식과 심상지도 구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별도의 논문으로 다루고자 한다.

다음에 제시되는 <표 1>과 <표 2>는 ‘간도’가 형상화된 남북 역사소설과 문학을 정리한 것이다. <표 1>과 <표 2>를 살펴보면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남북 역사소설에서 ‘간도’는 많은 역사적 사건을 체험하는 장소로서 민족사적 궤적을 주요하게 보여준다. 간도를 둘러싼 이러한 문학작품이 취하고 있는 정서적 특성은 시대 배경과 연결되어 한민족의 특성을 의미화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를 심상지리적 인식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남북 역사소설에 형상된 간도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해보고자 한다.

-
- 10) 신형기, 『북한소설의 이해』(서울: 실천문화사, 1996), 101~102쪽; 서재진,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6), 217쪽.
 - 11) 남원진, 『이야기의 힘과 근대 미담의 양식』(서울: 경진, 2011), 383쪽.
 - 12) 총서 『불멸의 력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성과로는 강진호, 『북한의 문화정전, 총서 불멸의 력사를 읽는다』(서울: 소명출판사, 2009); 강진호, 『총서 불멸의 력사 해제집』(서울: 소명출판, 2009); 강진호, 『총서 불멸의 력사 용어사전』(서울: 소명출판사, 2009) 등이 있다.

<표 1> '간도'를 형상화한 남한 역사소설

남한			역사적 시기	장소	심상지리
1	『토지』 (박경리, 솔출판사, 1관 6쇄, 1995, 1관1쇄는 1993)	1부	1897 한가위 ~1945 (1908.6~1911.4 생략)	평사리-간도-평사리, 서울, 진주, 만주, 간도, 일본-평사리	· 자유, 생명, 사랑, 한, 민 족혼
		2			
		3			
		4			
		2부			
		5			
		6			
		3부			
		8			
		9			
		10			
4부					
11					
12					
13					
5부					
14					
15					
16					
2	『북간도』 (안수길, 사상계, 1959~ 1967)	1부	1865~1945	압록강, 두만강 국경 지방-간도(비봉촌, 명동촌, 용정촌)	· 북간도 개척사, 이농민(移農 民)의 의지 형상화 · 민족운동의 형태(실력양성 의 종교, 민족운동 교육, 무 장독립투쟁의 항일운동)
		2부			
		3부			
		4부			
		5부			
3	『아리랑』 (조정래, 해냄, 1994~ 1995)	1부	1904~1945	김제(죽산)-군산-목 포-서울-만주-간도- 동경-훗카이도-하와 이-샌프란시스코-상 해-북경-블라디보스 토크(해삼위)-중앙아 시아-동남아시아	· 탈식민, 건국 서사(근대 민족 주의 희망) · 무장투쟁론, 반일감정 극대화 · 무정부주의, 북벽주의 대공 화주의, 공산주의 · 독립 열원, 정신적 저항/국제 공산주의의 정신/파벌싸움 · 공산주의=혁명국제연대 · 독립운동사
		2			
		3			
		4			
		2부			
		5			
		6			
		7			
		3부			
		8			
		9			
10					
4부					
11					
12					
4	『면동』 (홍성원, 동아일보사, 1991)	1	구한말 ~3·1운동 직후	경기도 남양부의 성 주골, 수원, 비봉, 서 울-만주	· 반일투쟁, 국권수호 · 부국강병
		2			
		3			
		4			
		5			
5	『야정』 (김주영, 문학과학지성 사, 1996)	1	조선 말기	강계-압록강-이호산, 양차항 환희령-청하 청구자촌-삼사도구- 탑전-강계	· 유토피아 공간 인식, 만주 이민 1세대 · 겹부제민의 휴머니즘 지향
		2			
		3			
		4			
		5			
6	『혼불』 (최명희, 매안, 제2관 9쇄, 2012, 1관1쇄는 1994)	1	일제강점기 1930~1940년대	전라북도 남원 상민 마을 거명골-만주	· 전통적 삶의 방식을 지켜 나간 양반사회의 기품, 평 민과 천민의 고난과 애환, 만주에서의 조선 사람 등의 비극적 삶과 민족혼의 회복 · 호남지방의 혼례와 상례의 식, 전래 풍속, 남원 지역의 방언 구사 · 민속학, 국어학, 역사학, 판 소리 분야에 활용
		2			
		3			
		4			
		5			
		6			
		7			
		8			
		9			
		10			

<표 2> '간도'를 형상화한 북한 역사소설과 총서 『불멸의 력사』¹³⁾

북한			역사적 시기	장소	심상지리
1	· 『두만강』 · 『리기영 선집(10)』(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1) · 『리기영 선집(11)』(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1) · 『리기영 선집(13)』(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3) · 『리기영 선집(15)』(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4)	1부	구한말 ~1930년대	송월동-함경북도 무산 7소만주 동북지방(용정, 화룡현, 명동촌, 연길)	반봉건·반외세, 건국 서사(공산주의 희망), 민주에서의 농농사(수리와 개간, 조선 비농사의 우수성), 항일무장투쟁, 노동계급 영도하의 민족해방투쟁, 간도이주와 개척
		2부			
		상			
		3부 하			
2	· 『낮은 올랐다』(김정, 1982)		1925~1926	지린성 화성의숙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까지의 투쟁
3	· 『혁명의 려명』(천세봉, 1973)		1927~1928	길림	학생들의 반일투쟁
4	· 『은하수』(천세봉, 1982)		1929~1930	길림	주체적 혁명노선 제시의 과정
5	· 『대지는 푸르다』(석윤기, 1981)		1930~1931	길림, 국내	조선혁명이 무장투쟁으로 발전되기 위한 과정
6	· 『봄우뢰』(석윤기, 1985)		1931~1932	연길	추수투쟁, 조선인민혁명군 창건까지의 투쟁
7	· 『1932년』(권정웅, 1972)		1932~1933	길림성 안도현 ~동화현	김일성의 첫 원정길인 남만원정, 조선독립군과 중국항일부대와의 합작
8	· 『근거지의 봄』(리종렬, 1981)		1933~1934	두만강 연안	유격근거지 창설과 보위를 위한 투쟁
9	· 『혈로』(박유학, 1988)		1934~1936	북만주	제1차 북만원정, 항일투쟁 사로서의 유격활동
10	· 『백두산기슭』(현승걸·최학수, 1978)		1936	백두산 지구	조국광복회 창립 선포
11	· 『압록강』(최학수, 1983)		1936~1937	길림성 무송현	항일무장투쟁 전성기
12	· 『위대한 사랑』(최창학, 1987)		1937	홍두산	항일혁명의 계승
13	· 『잊지 못할 겨울』(진재환, 1984)		1937~1938	몽강현 (중국 동북 지방의 정우현)	마당거우 밀영에서의 동거군정학습
14	· 『고난의 행군』(석윤기, 1976)		1938~1939	몽강현 남패자 ~압록강 연안 장백현 북대정사	항일 시기 '고난의 행군' 과정
15	· 『두만강지구』(석윤기, 1980)		1939	두만강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 진공 작전
16	· 『준엄한 전구』(김병훈, 1981)		1939~1940	백두산	대부대선회 작전 과정
17	· 『붉은 산줄기』(리종렬, 2000)		1939~1945		항일무장투쟁
18	· 『천지』(허춘식, 2000)		1940~1941	백두산	백두산 진군 과정

1) 자유, 생명, 사랑, 민족혼: 남한 역사소설 『토지』

『토지』(박경리)는 구한말에서 해방까지 20세기 전반 한국과 동아시아 전역을 구체적인 배경으로 한다. 이 소설에는 지리산과 평사리라는 공간이 대비되어 전개되며 경남 하동 평사리에서 시작하여 지리산, 서울, 전주, 통영, 부산, 간도, 연해주, 중국, 일본까지를 공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토지』는 1969년 9월 『현대문학』지에 게재된 이후 현재까지 여러 판본을 거치면서 수정 및 개작이 이루어졌다.¹⁴⁾ 이 중 이 글에서는 솔출판사에서 발행한 최초의 완간본 5부 16권을 『토지』의 원본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 작품 줄거리의 커다란 틀은 장소 이동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농경사회인 고향(정적 사회)으로부터 시장경제 사회(동적 사회)로 변하는 만주로의 대이동과¹⁵⁾ 고향으로의 귀환(하동, 진주, 평사리)이라고 볼 수 있다.

『토지』 1부는 1897년 한가위부터 1908년까지의 약 10년간의 이야기로 경상남도 하동군 안악면 평사리 마을의 최 참판 댁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역사적 배경으로는 동학운동, 개항, 갑오개혁 등이 등장한

13) <표 2>에서 2번부터 18번까지는 총서 『불멸의 력사』 ‘해방 후 편’에 속하는 장편소설이다. 이에 관한 정보는 남원진의 “현대적 이상과 복조선 문학의 근대적 문법,” 『이야기의 힘과 근대 미담의 양식』(서울: 경진, 2011)을 참고하였다.

14) 최유찬, “『토지』의 성립과 판본의 변이 양상,” 『토지의 문화지형학』(서울: 소명출판, 2004). 『토지』 판본: 작가의 초고 원고, 잡지 및 신문 연재본, 문학사상사본, 지식산업사본, 삼성출판사본, 솔출판사본, 나남출판사본, 영문출판사본, 동서문화사본, 솔출판사에서 삽화를 넣어 1부만을 간행한 판본 등.

15) 정현기, “2부만으로 읽은 박경리 『토지』론: 나와 너의 관계거리와 나의 나뉘 찾기 <토지문학공원>,” 『하이데거 연구』, 제15집(서울: 한국하이데거학회, 2007), 825쪽.

다. 1부에서는 최 참판 덕 가족사의 비극을 통해 당시 정치적 변화와 양반 계급 이념의 몰락을 그리고 있다. 이 중심에 있는 평사리 지역은 양반 소유주와 마름, 소작농들의 관계를 통해 당시 농경사회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일제 세력이 강화되고 가족의 연이은 죽음으로 어린 서희만 남게 된 최 참판 덕에 조준구가 등장하여 토지를 빼앗자 서희는 윤씨 부인이 물려준 금괴를 가지고 간도로 이주한다.

『토지』 2부는 1910년부터 약 7, 8년간 간도에 정착한 서희 일행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2부에서는 간도 이주로 인한 생활 변모와 민족교육의 양상, 식민지 자본주의 비판, 독립 운동가들의 활약 및 친일분자들의 암약, 가치관의 변천 등 서희 일행이 용정에 도착한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2부의 주요 공간인 용정은 1911년 5월 대화재¹⁶⁾ 이후 서희가 공 노인의 도움으로 대상(大商)으로 성장하고 길상과 혼인하여 계급사회에 대한 인식 전환을 보여주게 되는 장소이다. 이후 구시대를 대표하는 김 훈장의 죽음, 임이네의 탐욕스러운 몰욕과 이에 대비되는 용이와 월선의 사랑과 죽음 등이 전개된다. 서희는 간도 땅을 소유와 투자의 개념으로 간주하고 사고파는 일을 능숙히 처리하여 큰 부를 축적한다.

16) 1911년 5월 용정에 대화재가 발생, 거리가 거의 불탔다. 일제는 조선총독부의 명의로 2만 5,000원의 자금을 내어 용정에 '구제회'를 설립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부해주었다. 이에 지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남북으로 뻗은 한족 거리와 연계된 조선족 거리에 새 주택과 잡화점, 여관, 음식점 등이 들어섰으며, 일본 상부지에는 일본 양행, 조선은행 출장소, 구제회, 각종 회사 등 건축물이 들어섰다. 거리가 번창함에 따라 가로세로 뻗은 골목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생겨거나 이 골목을 '아흔아홉골목'이라 불렀다. 이렇게 해서 용정에는 5개의 시장이 형성되었고, 1928년 통계에 따르면 용정 지역의 시장 무역총액은 연변에서 가장 높았다. 박청산·김철수, 『이야기 조선족력사』(연변: 연변인민출판사, 2000), 55~56쪽.

그렇다고 하여 세차게 몰아치는 근대의 바람 앞에 퇴락한 빈집 같은 형식을 고수하는 사양(斜陽)의 후예들하고는 다르다. 서희는 과감하게 꺾테기를 찢어발기고 핵을 보존키 위해 오히려 양반의 율법에 반역가지 하지 않았던가. 이를테면 하인과 혼인한 것이 그것이며 소위 오랑캐들이 사는 북방에 가서 주린 창자를 움켜쥐고 대의를 부르짖는 청빈한 선비들, 언 손에 총대 들고 야음을 타고 선만(鮮滿) 국경을 넘나드는 꽃 같은 젊은이들, 그리고 결빙한 두만강을 수없이 건너오는 우직한 백성들의 짚신, 무수한 발을 외면한 채 용정촌에서 장사와 투기로써 수만 재산을 모으고 일본에서는 새로운 재벌들을 탄생케 했으며 중국에서는 민족 자본의 숨구멍을 트게 한 저 세계대전의 호경기, 그것을 만주서 맞이했던 최서희는 곡물과 두류(豆類)에 투자하여 일확천금을 얻은 것이 그것이며, 빼앗긴 가산도 가산이려니와 수모에 대한 보복과 사문의 재기를 위하여 교활무쌍한 술수를 서슴지 아니했던 것이 그것이며 진주로 돌아온 후에도 최서희가 호적상 김서희로 둔갑하고 김길상이 최길상으로, 그리하여 두 아들에게 최씨 성을 가지게 한 것 등등……(『토지』 7권, 182~183쪽).

이 시기에 해당되는 주요 역사적 사건으로는 한일합방, 토지조사 사업, 용정 대화재, 간도협약,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총독 암살 미수 사건(105인 사건), 무술정변, 신민회 창립과 해체, 안악 105인 사건, 토지조사 사업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사건은 소설 속에서 등장인물들의 행동이나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화나 논의 속에서 등장한다. 또한 장소의 의미도 전반적으로 인물의 구체적 행동에서 발로되는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논의 속에서 지명된다. 특히 지식인들은 대화나 토의를 통해 역사적 사실과 이에 대한 역사의식을 선

보이고 있다.

이 작품에서 역사에 대한 맥락을 형성하는 것은 대개가 인물들의 토론 마디이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건의 재구성이다. 이에 대해서는 역사의 징후들을 서사적 개연성으로 엮어내거나 역사적 기표에 대한 기의의 무한 번식을 허용하는 관점으로 재구성하는데 『토지』는 바로 그런 관점을 보여주는 독특한 소설이라는 평가를 내린다.¹⁷⁾

간도 용정촌의 의미는 용이의 아들인 홍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럼에도 용정촌은 홍이에게는 지순한 정신의 고향, 소중한 것을 묻어두고 온 곳이다. 용정촌이 가지는 의미, 송장환 선생은 간도 땅은 말할 것도 없이 남만주 일대는 옛날에 잃은 조선의 땅이라 했다. 땅과 더불어 잃은 그 수많은 백성들의 피는 지금 만주족 속에도 맥맥이 흐르고 있을 것이라 했었다. 그리고 또 공노인은 말했었다. 울창한 원시림에 묻혀 있던 용정촌에 처음 낫과 도끼질을 한 사람은 조선인이였었다고. 유림계(儒林契)에 모여들던 기개 높고 학덕으로 신선같이 보이던 선비들이며 절(節)을 굽히지 아니하고 죽음을 택하였던 수많은 의병장, 의병들 소식이며 정착민들의 뿌리 깊은 자긍심은 물론이거니와 유랑 동포조차 왜인들에겐 추호 비굴하지 아니했던 곳. 이조 오백 년 동안 심은 삼강오륜, 그 윤리 도덕에 길들여진 상민들은 비록 의복이 남루했을지언정 예의범절을 모르는 왜인들을 짐승 보듯 했으며 적개심을 지나 차라리 모멸이요, 정복자에게 오히려 우월감을 맛보는 그런 곳. 그러한 날뽕 팔이 나그네들을 홍이는 국밥집 월선옥에서 얼마든지 보았었다. …… 더

17) 이상진, “『토지』 속의 만주, 삭제된 역사에 대한 징후적 독법,” 『현대소설연구』 (서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249쪽.

럽고 염치없고 상스러웠던 그 왜인들이 또다시 만주 바닥까지 달려왔으니. 항거를 맹세코 떠난 사람들, 어리석어서, 힘이 없어서 살던 고향을 왜인들에게 빼앗기고 떠난 백성들, 상호 갈등이야 없을까. 그러나 석양의 마지막 아름다움 같은 선비들의 그 윤리의 향기나, 새로운 문물에 눈뜬 젊은이들의 강인하고 열정적인 투쟁심이나, 신분의 질곡에서 풀려났지만 그러나 나라 잃은 비애를 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율배반의 심적 상황에서도 상부상조의 구심점으로 모여들던 상민이나, 척후병이요, 약탈자인 일본의 무뢰한과는 유(類)가 다른 것이다. 그러한 곳, 이즈오백 년 사상의 마지막 정수(精髓)가 옮겨지면서 그 정신적 토양에서 미래를 향해 새로운 싹이 돌아나는 곳, 자긍심이 팽배하고 항일 정신이 투철했던 용정촌에서 홍이는 피부 가까이 무엇을 느끼며 보았는가(『토지』 7권, 229~230쪽).

홍이는 생모 임이네와 월선의 틈바구니에서 겪은 곤혹과 갈등으로 괴로워하고 아버지인 용이의 분노, 슬픔, 절망이 빛은 행패로 집안을 지옥으로까지 여기지만 용정촌을 정신적 고향으로 여긴다. 이는 홍이 마음속에 영원한 어머니인 월선의 희생적인 보살핌에 의한 것이지만 용정촌에서 만났던 조선인의 도도한 기상과 청빈한 가풍, 자랑스러운 기질 등을 존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소설에서 간도가 고토 회복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면 한편으로는 인간의 자유와 생명에 관한 고찰도 담고 있다. 하나하나의 생명은 전체 우주의 운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고 그 소우주들의 창조적인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생명사상, 무한히 지속되는 우주적 진행에 대해서 단절감을 느끼는 유한자인 인간의 희구, 생명의 고유한 정서이자 소망으로서의 한을 부각시킨다.¹⁸⁾ 길상은 서회와 결혼하지만 계급

과 애증의 질곡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공상은 옥이네에 대한 애정 때문이 아니다. 연민 때문도 아니다. 자유, 사랑의 고통, 사랑의 질곡에서 빠져 달아나고 싶은 마음, 옥이네는 아무것도 길상에게 걸어놓은 것이 없다. 만주의 별관은 넓다. 황사(黃砂)가 나는 공간은 무한하며 말굽 소리가 가슴을 떨리게 하는 대륙이다. 강물도 산림도 엽매이기에겐 삭막하고 광활하다. 길상은 또 하동의 지리산, 그 지리산 속의 절을 생각할 때가 있다(『토지』 5권, 310~311쪽).

풍전등화 같은 목숨, 하루살이 같은 인생의 이들. 연해주를, 만주 땅을 유랑하는 백성들이 품팔이 일꾼뿐일까마는 독립지사든 장사꾼이든 혹은 서회 같은 자산가, 심지어 김두수 등속의 앞잡이까지 풍전등화의 목숨이며 하루살이 같은 인생임엔 대동소이한 것, 남의 땅 위에 뿌리박기도 어렵거니와 뿌리가 내린들 튼튼할 까닭이 없다. 길상은 끝까지 살아남을 사람은 두만아버 같은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한다(『토지』 5권, 340~341쪽).

그리고 길상은 김환의 외침으로 오히려 자신이 굳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서는 그 자신을. 그것은 생명의 유한(有限)이다. 죄(罪)에 엽매인 것 아닌 삼라만상, 모든 것은 생명이 있고 또 생명이 없는 유한, 역설이라면 기막힌 역설이겠으나. 어느 시기까지 유지될 안정(安定)일지는 모르지만 길상은 서회와 아이들에게로 향하는 사랑이 담백한 상태로 자리 잡는 것을 느낀다(『토지』 6권, 391~392쪽).

18) 최유찬, “빅뱅이론과 생명사상으로 읽은 박경리의 토지,” 『말』, 통권 126호(서울: 월간 말, 1996), 210쪽 참고.

<그림 1> 『토지』



이 소설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자본주의 정책과 문화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간도의 용정촌 사람들은 대부분 농민이 아닌 상인이다. 그런데 이들은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 일제의 식민 정책 속에서 자본주의의 폐해를 겪는 조선인들의 이야기는 민족 자본 육성으로까지 이어진다.

결국 그러니만큼 자본가들은 권력과 결탁하지 않는 이상 존재할 수가 없고 필연적으로 군소자본가들을 잡아먹는 것이 그들 생리고 보면, 그리고 도 권력층과 이윤 분배를 위해서도 군소자본가들을 잡아먹고서

자신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존재하는 자들의 운명이기도 하나
까. …… 결국 힘의 보강인데 화급해지면 외세를 끌어들이는 것도 어렵
잖은 일이지 그 넓은 저변에 우글거리는 개미떼를 소모하기 위한 전쟁
도 불사 아니겠나?”(『토지』 6권, 166쪽)

2) 탈식민 건국 서사: 북한 역사소설 『두만강』

『두만강』(이기영) 제1부는 19세기 말에서 1910년까지, 2부는 1910
년 이후부터 3·1운동 전후까지, 3부는 1920년대 초부터 1930년대 초
에 이르는 시기를 배경으로 충청도 송월동에서 함경도 무산, 간도로
이주하는 농민의 삶을 통해 민족의 수난사를 그리고 있다. 특히 간도
지역이 중심이 되어 민족해방투쟁이 무장투쟁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형상한다. 작가는 제3부를 쓰기 위해 만주를 답사하고 작품 속에서
이 일대를 항일무장투쟁의 근거지로 형상하였다. 이 작품은 농민봉기,
의병운동, 애국계몽운동, 독립군운동, 3·1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광범위한 민족해방운동의 총체적 현실을 실감 있게 보여주었다는 점
에서 민족해방운동의 기념비적 작품이라고 평가받는다.

19세기 말엽부터 1930년대까지의 당대 사회를 총체적으로 형상화
한 『두만강』은 1954년에 제1부, 1957년에 제2부, 1961년에 제3부가
발표되었으며 1960년에는 북한에서 ‘산 역사 교재’라고 평가받으면
서 인민상을 수상하였다. 『두만강』은 역사적 사건과 시대 배경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는데 장소의 이동에 주목해볼 수 있다.

장소 이동 경로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1부에서는 충청도 두메
산골인 송월동을 배경으로 농민들의 봉기와 의병투쟁, 애국계몽운동
등의 역사적 사건을 전개한다. 2부에서는 1910년 무렵부터 3·1운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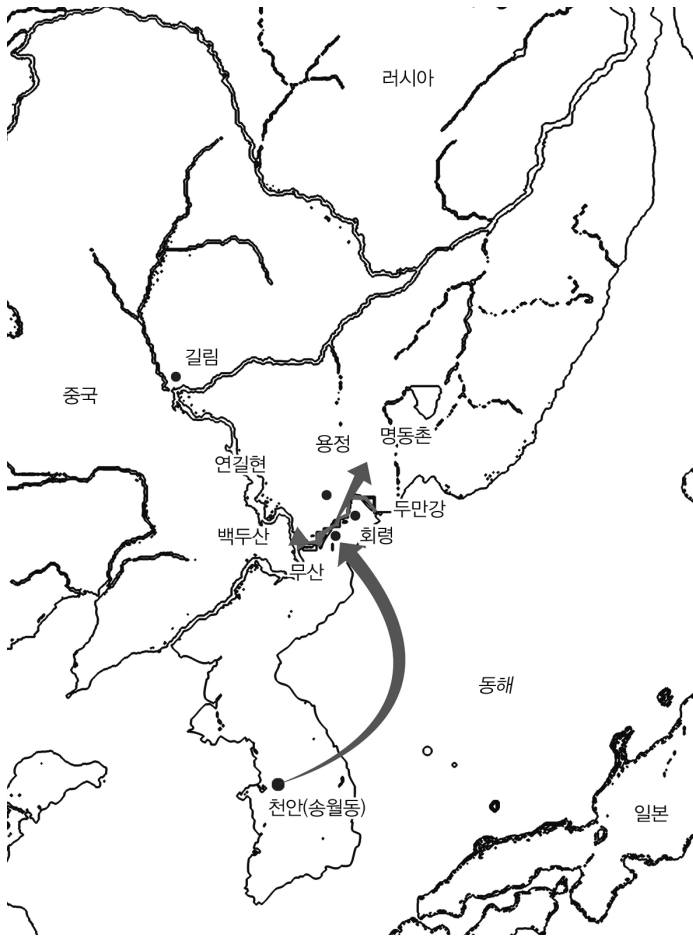
일어난 1919년 전후 시기에 송월동, 함경북도 무산, 간도 지방으로의 이동을 통해 농민과 항일무장세력의 연대를 보여준다. 3부에서는 곱손의 아들인 씨동이 안무의 지휘 아래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며 농민들의 계급적 각성을 통해 추수폭동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준다.

『두만강』 2, 3부에서는 간도라는 장소에 가족의 이산과 민족의 고난이 존재하는 것으로 그려지며 한편으로 의병활동과 독립투쟁을 위한 거점으로 형상화된다. 씨동이는 아버지 곱손과 함께 고향을 떠나 만주로 가다가 무산에서 곱손이 일제 경찰에 잡혀 고문으로 몸이 상하자 전통적 지식인으로 일제에 항거하던 이진경의 부탁을 대신 전달하는 임무를 맡는다. 이 임무를 통해 반제투쟁에 관심을 갖게 된 씨동에게 만주는 민족해방 투쟁의 시원이 되는 장소가 된다.

『두만강』 2부의 주요 무대는 간도의 명동촌¹⁹⁾ 일대이다. 명동촌은 씨동이 김약연과 독립운동가 안무를 만나고 이들을 통해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곳이다. 당시 명동촌은 민족 교육의 장소이자 독립운동가들의 거처로 북간도의 한인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두만강』 3부에서 용정은 고향에서 땅을 잃고 쫓겨난 빈농들이 넘어오는 곳으로 소개된다. 일제의 탄압과 지주들의 착취를 견디지 못한 빈농들은 고향을 등지고 살 곳을 찾아 간도로 넘어 온다. 그러나 간도에서의 삶도 고향과 별반 다르지 않다.

19) 소설 『두만강』의 주요한 무대이기도 한 명동촌은 1899년 김약연을 중심으로 한 전주 김씨 31명, 김하규를 중심으로 한 김해 김씨 63명 등 총 142명이 북면 땅 중성에서 두만강을 건너와 만든 마을이다. 유병문, “이기영의 『두만강』: 눈물과 한, 그보다 억센 겨레의 투쟁으로 흘렀던 두만강,” 『민족21』, 제39호(서울: 민족21, 2004), 145쪽.

<그림 2> 『두만강』



조선 이주민들은 중국의 토호들과 만청 정부 관리들의 박해를 당하였다. 그 외에도 이주민들의 호적이 조선 내에 있는 것을 빙자하여 리조 관리들은 해마다 가을봄으로 찾아 와서 세금을 받아 갔다. 이래저래 뜯기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간도에서도 살 수 없었다. 그런데 로일

전쟁 이후부터 일제의 세력이 커짐에 따라 그들은 왜놈들한테까지 박해를 당하였다(『리기영 선집(11)』, 66쪽).

참으로 그들이 이 땅의 주인이요, 대지의 아들이다. 과연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어서 마음 놓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그런데 왜놈들은 간도까지 쫓아 와서 그들을 못 살게 굴었다. 또한 길림성 정부 밑의 탐관오리들을 그들을 ‘사간민’이라고 압박하며 략탈하였다(『리기영 선집(11)』, 644쪽).

『두만강』 3부는 씨둥이 김일성의 소식을 듣고 그의 항일유격대의 일원이 되어 민족 해방을 꿈꾸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두만강』은 투쟁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며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을 염원한다. 이 소설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사건은 조선 후기 민란, 동학, 항일의병투쟁, 3·1만세운동, 항일무장투쟁 등이다. 이 소설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하며 그 투쟁을 통해 새로운 국가를 염원하고 있다.

3) 북간도 이주와 개척사: 재외한인 역사소설 『북간도』

『북간도』(안수길)는 1865년에서 1945년까지를 시대 배경으로 하여 만주라는 ‘민족의 고토(故土)’²⁰⁾에서 겪는 이주민의 삶을 그리고 있다.

20) 만주를 “우리의 선조가 가장 먼저 자리를 잡았고 3,000년 이상이나 살아온”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옛터,” 즉 민족의 고토로 보는 담론. 신형기, “민족 이야기의 두 양상,” 『남북한 역사소설 비교 연구』(대구: 계명대출판부, 2006), 138쪽.

이 소설은 재만 조선인이었던 작가의 간도 체험의 산물로서 일제강점기 간도, 만주 등으로의 이주와 개척을 통해 민족의 수난과 민족 자주권 투쟁에 관한 역사를 담고 있다.

이 소설은 4대에 걸친 유이민의 삶을 형상한다. 이한복(1대)은 월강(越江)이 금지된 두만강 건너편 토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짓다가 관가에 잡혀 곤욕을 치르지만 백두산정계비의 내용을 전하고 결국 북간도로 이주하게 된다. 이한복 일가가 북간도 비봉촌으로 이주한 뒤 장손(2대)과 창윤(3대) 세대는 청국 관헌과 토호들의 횡포로 고된 이주민의 삶을 겪는다. 창윤과 정수(4대)는 용정으로 거처를 옮기는데 창윤은 기와 굽는 일이 잘되고 정수는 민족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조선인들의 항일운동이 전개되고 정수도 이에 동참한다. 정수는 감옥에 갇혔다가 1945년 광복과 함께 출감한다.

『북간도』는 압록강, 두만강의 국경 지방에서 먹고살기 위해 사잇섬 농사를 짓던 일가가 월강하여 4대에 걸쳐 피와 땀으로 간도를 개척하고 항일운동에까지 참여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세대에 따라 간도로 이주하게 되는 원인과 정착 과정, 민족주의 독립운동의 과정을 전개한다. 『북간도』에서 간도는 민족의 고유한 영토였지만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압박을 받는 곳으로 형상된다.

그리고 한복이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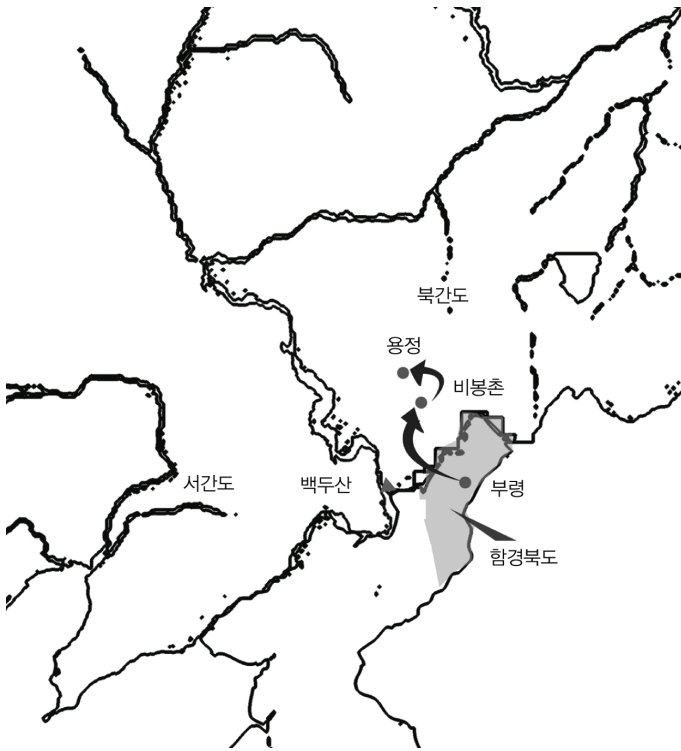
아득한 옛날, 만주는 우리 민족의 발상지였고 천여 년 전의 고구려와 그 뒤를 잇는 발해 때에는 우리 판도의 중심지였다. 지금은 청국의 영토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우리나라 땅이라고 할아버지는 말했다. 그 증거로 할아버지는 150여 년 전에 세운 정계비를 보면 알 일이라고 했다(『북간도』, 29쪽).

여기 용드레촌에 모여든 사람들은 각지 부락에서 청국 관현과 악질 토호와 입적자의 불법 압박에 시달리다 못해 동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처음에 밭을 붙였던 곳에 안착할 수 없는 까닭이 무엇임을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것은 실력이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압제를 받았고, 마침내 쫓기게까지 된 것이 아니었던가?(『북간도』, 95~96쪽)

유랑민들이 살기 좋은 고장을 찾아 남부여대해 돌아다니다가 용드레 우물이 있는 이곳을 발견하고 그 우물을 중심으로 집을 짓고 밭을 이루고 논을 풀고 한 것이 용정촌의 기원이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여느 촌락과 같이 농사가 위주인 마을에 지나지 않았으나, 차차 회령 지방의 상인들이 간도 방면의 곡식을 무역하기 위해 용정촌을 그 근거지로 삼았다. 주변의 농촌에서는 곡식을 용정촌으로 운반해다 무역하는 사람에게 팔지 않아서는 안 되었다. 용정촌은 자연히 농촌을 겸한 상업지로 변해갔다(『북간도』, 96쪽).

만주에서 청국 관현이 구축당하고 그 세력이 약화되자 조선 정부에서는 해결을 보지 못한 채 내려오던 영토 문제를 갑자기 떠메고 나서게 되었다. 간도 지방은 우리 영토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리해야겠다. 당당한 주장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말꼬리에 붙은 파리가 아닐 수 없었다. 임오군란 때에는 청국의 세력이 강대했으므로 거기에 기울어졌던 조선 정부는 러시아가 그 후 일본, 청국과의 관계로 두 세력을 내리누르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대두한 것이 친로 정책이었다. 청일전쟁 후부터의 일이었으나 을미사변(=1895) 때에는 고종과 세자가 아관에 파천한 일

<그림 3> 『북간도』



까지 있어 러시아의 세력이 청국을 대신해 조선을 끼고 일본과 대립하게 되었던 것이었다(『북간도』, 97쪽).

그리고 마침내 9월 4일(1909) 간도에 관한 일곱 항으로 된 『간도협약』이 체결되었다. 두만강을 청·한 양국의 국경으로 할 것, 용정촌, 국자가, 두도구, 백초구를 외국인의 거주와 무역을 위해 개방하고, 일본은 그 지방에 영사관이나 영사관 분관을 설치할 것, 그리고 개방지 이외의

조선 사람은 청국에 복종하고 청국 지방 장관의 재판을 받으며 남세 그 밖의 행정 처분을 청국 사람과 같이할 것…… 이렇게 해 일본은 두 만강 이북의 간도, 그 영토와 조선 주민을 송두리째 청국에 넘겨주고 만 것이었다. 원한의 통감부 파출소는 물러갔다. 그러나 그것은 원한을 걷어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큰 원한의 씨를 심어 놓고 간 것이다. 그 뒤엔 무엇이 올 것인가? 이제, 여기가 우리 땅이라고 영 입 밖에 낼 수 없게 되었다. 북간도의 조선 농민들은 완전히 남의 나라에 온 ‘이 미그런트’ 유랑의 이주민이 되고 말았다(『북간도』, 210~211쪽).

민족 고유의 영토인 간도에서 개척을 시도하다가 이주민이 되어버린 등장인물들은 열강의 이해관계에 의해 생존과 민족을 위한 투쟁에 나서게 된다. 이 작품에는 간도를 둘러싼 역사적 사건들로 중국과 러시아 정세, 간도관리사로 파견된 이범윤의 사포대 조직과 훈련, 청일 전쟁, 노일전쟁, 일본의 간도 패권 인정, 15만 원 사건, 105인 사건, 용정 화재사건, 중국과 조선인들의 감정 악화, 일본군에 의한 셋노루 바우 예배당 몰살사건 등이 전개된다.

이 작품은 <그림 3>과 같은 이동 경로를 통해 식민지하 하층민인 농민들의 비참한 삶을 그리는 한편 민족교육, 종교운동, 독립투쟁까지 다루고 있다.

3. 장소이동에 따른 ‘간도’의 심상지도

장편 역사소설인 『토지』, 『두만강』, 『북간도』는 일제 식민지 시기 민족의 이동과 근대 전환의 모습을 형상하고 있다. 이 세 작품은 작가

의 집필 환경과 창작 배경이 다르면서도 ‘간도’라는 장소에서의 한민족의 모습을 형상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박경리는 1969년부터 1994년까지 『토지』를 집필하면서 역사적인 사건과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과 소외, 낭만적 사랑과 생명사상을 다루었다. 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본능을 지키기 위한 주인공들의 의지를 통해 시대와 체제, 인간의 욕망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²¹⁾ 『토지』 2부의 주요 장소는 1910년대 초·중반의 간도 용정으로 당시 한민족에게 희망의 땅으로 표현된다. 간도는 주인공 서희에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부를 축적하는 장소로, 길상에게는 독립운동의 장소로 인식된다. 또한 여러 등장인물들을 통해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과 사랑, 생명사상을 표출하고 있다.

간도에 대한 역사적 인식은 『토지』의 용정학교 강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안시성에서 훨씬 내려온 이곳이 지금의 대련(大連)입니다. 그리고 올라간 여기가 요동성이며 한참을 더 올라가서 지금의 장춘(長春)이지요. 부여성(夫餘城)은 장춘 후방에 있고 지금의 하얼빈은 여기, 대련, 요동성, 장춘, 할 때마다 만주 지도 속에는 동그라미 하나씩 늘어난다. 그러면 다음 이면을 보십시오. 우리 조선 땅과 아라사, 그리고 청국, 이 세 나라의 국경이 모여 있는 이곳은 연해주로 넘어가는 길목인데 여기 훈춘 방면에서 보기로 합시다. 훈춘에서 북면으로 사뭇 올라가면 송화강(松花江)……”

송선생은 강줄기를 죽 그어나갔다. 역사를 가르치는지, 지리를 가르

21) 2004년 마산 MBC 특집프로그램으로 기획한 ‘서울대 교수 송호근과의 대담’ 참고.

치는지 어찌면 그 두 가지를 다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훈춘에서 송화강까지 그 사이의 거리는 족히 이천 리는 될 것입니다. 우리 조선 땅의 길이를 삼천 리라 하는데 여러분들도 지도상으로 대개는 짐작이 될 줄 압니다. 자아 그러면 그 당시의 국경선을 그어봅시다.”

안시성과 요동성 밖에 있는 요하(遼河)를 따라 백목이 힘찬 줄을 그어 나간다. 부여성 외곽으로 해서 하얼빈까지 왔을 때 백목이 부러졌다. 나머지 짧아진 백목이 송화강을 따라 시베리아로 쪽 빠져나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압록강 두만강 밖에 있는 이 땅덩어리의 크기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잃어버린 강토, 조선의 땅덩어리만하다고 여러분은 생각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강토 조선, 조선의 땅덩어리만한 것이, 어찌면 더 클지도 모르는 땅덩어리가 압록강 두만강 너머에 또 하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아!”(『토지』 4권, 124~125쪽)

간도를 잃어버린 강토로 설명하는 송장환의 강의는 간도가 민족의 고토로 회복되어야 할 대상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작가 박경리가 작품 속에서 드러내는 간도에 대한 고토 의식은 물질적인 것이기보다 우리의 정신적 원류를 찾으려는 방향을 향해 있다는 논의를 참고해볼 수 있다. 이 논의에서 작가가 만주와 한반도의 지리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한 묘사는 경험 범위 내에서 묘사하는 안일성이라기보다 우리의 영토의식이며, 동시에 정신적인 원류를 찾으려는 의식적인 노력의 소신이라고 해석한다.²²⁾

22) 이상진, “『토지』 속의 만주, 삭제된 역사에 대한 징후적 독법,” 240쪽 참고.

이기영의 『두만강』은 1954년에서 1961년까지 발표되었는데 이 소설의 창작 배경은 북한 문학의 특성상 당시 문예정책과 무관할 수 없다. 1950년대 북한은 ‘전후 복구 건설과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위해 이에 부응하는 문예창작방법론과 창작 실천을 전개하였다. 『두만강』은 혁명 투사로 성장하는 주인공의 창작 문제와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을 기리기 위한 ‘대작 장편’ 창작방법 논쟁과 연결된다. 1959년에 이르러 당 문예정책의 중심은 공산주의 교양과 문학에서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하는 문제로 모아졌다.²³⁾ 이에 부응하여 『두만강』은 주인공이 혁명 투사로서 성장하는 과정과 국내 노동자와 농민들이 만주에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 합류하는 과정을 그린다. 『두만강』에서 간도와 만주의 지역적 의미는 이러한 북한의 역사적 전망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두만강』에 대해서는 한국 근대 농민의 문학적 재현과 수리복합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글을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²⁴⁾ 이 글은 식민지 속 농민들의 삶을 ‘수리(水利) - 논외 개간 - 이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만강』에서는 논외 개간 방법으로 산간 지역의 냇가를 이용하는 방법(1부), 제언 개수 공사(2부), 넓은 평야 지대의 진펄을 개간하는 방식(3부)이 소개된다. 여기에서 간도의 논외 개간의 방법은 조선의 벼농사 기술의 우수성을 표상하는 것이다. 곶손은 송월동에서 옹거와 함경도 무산에서 논을 개간하는데, 농업공동체를 이루면서 수리관개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두만강』 2부는 씨동이 활약하는 간도 일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북방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풍

23) 김성수, 『통일의 문학, 비평의 논리』(서울: 책세상, 2001), 342쪽.

24) 윤영옥, “한국 근대 농민의 문학적 재현과 수리복합체,” 『한국언어문학』(대전: 한국언어문학회, 2009) 참고.

속을 통해 북방인들의 기질과 지혜를 담았다. 특히 이주한 농민들은 개간하고 벼농사 짓는 법을 중국인에게 가르쳐주는데 오히려 그곳 지방 관리의 가렴잡세로 핍박을 받는 내용이 전개된다.

명동촌은 아늑한 오봉산 속에 싸여 있다. 그러나 서면으로는 광활한 평원과 통하였다. 이 처녀지에서 이주민들은 작년부터 논을 개척하는 관개 공사를 시작하였다(『리기영 선집(11)』, 642쪽).

룡정은 간도의 ‘서울’이라 하여 왜놈들은 거기에도 온갖 시설과 기관을 확장하고 있다. - 동척 회사 지점과 식산은행 등 금융기관을 설치하는가 하면 일본 령사관 경찰망 확장과 길회선 철도의 부설계획이며 소위 만주 개발을 표방하여 만선 척식회사의 창설 등은 놈들의 대륙 침략 정책을 한 걸음씩 구체화함이 틀림없었다.

그와 반면에 국내에서는 땅을 떼우고 고향을 쫓겨난 빈농민들이 떼를 지어 국경을 넘어오고 있다. - 그들은 남부녀대로 매일과 같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온다(『리기영 선집(13)』, 11쪽).

말하자면 이 명동촌은 조선의 이주민들이 한 호 두 호 모여들어서 농지를 개척하고 부락을 이루어서 오늘의 발전을 가져오게 한 것이었다(『리기영 선집(11)』, 644쪽).

재만 조선인 출신인 안수길은 해방 후 월남하여 1959년부터 1967년까지 『북간도』를 창작하였다. 이 소설은 작가의 만주체험 문학을 결산하고 후대의 소설들로 나아가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으며²⁵⁾ 작가의 이력과 1950·1960년대 시대적 특징과 관련되어

<그림 4> 『간도 심상지도』



반공이데올로기의 검열이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²⁵⁾ 『북간도』는 간도로 이주한 한민족이 외세의 탄압과 억압을 극복하는 과정을 전개하면서 민족주의적 관점을 제기한다.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에

25) 박상준, “『북간도』에 나타난 형식과 역사의 변증법,” 『상허학보』, 제24집(서울: 상허학회, 2008), 230쪽.

26) 김재용, “안수길의 만주체험과 재현의 정치학,” 『만주연구』, 제12집(서울: 만주학회, 2011).

간도에서의 생존 문제가 주체적인 민족 수호의 문제로 귀결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남북 역사소설에서의 간도의 의미를 정리해보면 민족의 수난사 체험과 민족 공간의 확대라는 공통점을 지님을 알 수 있다. 간도는 한민족의 이산으로 인해 디아스포라(diaspora)가 생성되는 곳이며 벼농사 전파로 수전 농민의 우수한 기질이 발휘되는 곳이다. 간도는 명동촌, 용정촌을 중심으로 실력양성의 종교, 민족교육운동, 무장독립의 항일운동이 전개되는 곳이며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등의 독립투쟁을 통해 한민족의 위상이 높이 성립되는 곳이다. 남한 소설에서 독립투쟁은 1920년대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등이 있으며 북한 소설에서는 1930년대 중후반의 빨치산 투쟁을 항일무장투쟁으로 다룬다.

4. 결론

이 논문은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달리하는 남북 역사소설에 형상화된 간도의 심상지리적 인식을 살펴보고 심상지도를 구축하였다. 역사소설 속에 구현된 간도의 장소적 의미는 심상지리적 인식에 의해 유형화할 수 있었는데 남한 역사소설 『토지』에는 자유, 사랑, 생명, 민족혼이, 북한 역사소설 『두만강』에는 탈식민 건국 서사, 재외한인 역사소설의 특징을 지니는 『북간도』는 이주와 개척의 역사가 인식되었다.

『토지』는 생명과 자유의 존재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토지』는 간도를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의한 근대 자본주의 형태를 비판하는 장소로 인식한다. 『두만강』은 간도를 중심으로 민족해방투쟁이 무장투쟁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형상하고 있다. 『두만강』은 저항과 투쟁의 탈식

민적 인식을 두드러지게 나타낸다. 이 작품은 민중이 주체가 된 민족 해방을 위해 탈식민화를 위한 무장투쟁을 옹호한다. 『북간도』는 북간도로 이주한 조선인들의 삶을 그리고 있으며 일제강점기에 간도에서의 생존 문제가 주체적인 민족 수호의 문제로 귀결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남북 역사소설에서 간도는 근대 농민의 삶을 구현하는 장소로, 일제 식민지 정책에 의한 근대 자본주의 형태를 비판하는 장소로, 역사적 정통성의 흐름을 규정하고 민족적 상상력을 부여하는 장소로 나타난다. 이러한 남북 역사소설은 일제강점기의 역사 이면에 존재했던 한민족의 삶의 이야기와 역사 공간을 되돌려주는 역할을 한다. 남북 역사소설의 공통항은 민족의 수난사 체험과 민족 공간의 확대라는 점으로 장소 이동에 따른 심상지리적 인식의 차이를 보이면서도 공통적인 심상지도를 구축하고 있다. 간도 표상은 민족 공간이 확대된 곳이자 교육과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농사 전파 등의 한민족의 기질적 우수성 등으로 나타난다.

■ 접수: 7월 1일 / 수정: 7월 26일 / 채택: 7월 30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 리기영, 『리기영 선집(11)』(평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1).
_____, 『리기영 선집(13)』(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3).
_____, 『리기영 선집(15)』(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4).

2. 국내 자료

1) 단행본

- 강진호, 『총서 불멸의 력사 용어사전』(서울: 소명출판사, 2009).
_____, 『북한의 문화정전, 총서 불멸의 력사를 읽는다』(서울: 소명출판사, 2009).
_____, 『총서 불멸의 력사 해제집』(서울: 소명출판, 2009).
김성수, 『통일의 문학, 비평의 논리』(서울: 책세상, 2001).
남원진, 『이야기의 힘과 근대 미담의 양식』(서울: 경진, 2011).
민현기 외, 『남북한 역사소설 비교 연구』(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박경리, 『토지』, 1~16권(서울: 솔출판사, 1994).
박덕규, 『문학공간과 글로컬리즘』(서울: 서정시학, 2011).
안수길, 『북간도』(서울: 중앙일보사, 1993).
이-푸 투안(Yi-Fu Tuan), 『공간과 장소』, 구동희·심승희 옮김(서울: 대운, 2011).
조정래, 『아리랑』(서울: 해냄, 1994~1995).
최명희, 『혼불』(서울: 매안, 2012).
최유찬 외, 『토지의 문화지형학』(서울: 소명출판, 2004).
한국사사전편찬회 엮음, 『한국근현대사사전』(서울: 가람기획, 2005).

2) 논문

- 구인모, “한국 근대시와 ‘조선’이라는 심상지리,” 『한국학연구』, 제28집(서울: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8).

- 김양선, “옥시덴탈리즘의 심상지리와 여성(성)의 발명: 1930년대 후반 소설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서울: 민족문학사연구소, 2009).
- 김재용, “안수길의 만주체험과 재현의 정치학,” 『만주연구』, 제12집(서울: 만주학회, 2011).
- 김중욱, “유토피아와 역사, 그리고 현실: 김주영의 『아정』,” 『작가세계』, 제31호(서울: 세계사, 1996).
- 박상준, “『북간도』에 나타난 형식과 역사의 변증법,” 『상허학보』, 제24집(서울: 상허학회, 2008).
- 서재진,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6).
- 신형기, “민족 이야기의 두 양상,” 『남북한 역사소설 비교 연구』(대구: 계명대 출판부, 2006).
- _____, 『북한소설의 이해』(서울: 실천문화사, 1996).
- 유병문, “이기영의 『두만강』: 눈물과 한, 그보다 역센 거래의 투쟁으로 흘렀던 두만강,” 『민족21』, 제39호(서울: 민족 21, 2004).
- 유수정, “잡지 『조선』(1908~1911)에 나타난 간도·만주 담론,” 『아시아문화연구』, 제19집(서울: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0).
- 윤영옥, “한국 근대 농민의 문학적 재현과 수리복합체,” 『한국언어문학』(대전: 한국언어문학회, 2009).
- 이상진, “『토지』 속의 만주, 삭제된 역사에 대한 징후적 독법,” 『현대소설연구』(서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 정현기, “2부만으로 읽은 박경리 『토지』론: 나와 너의 관계거리와 나의 나뉘 찾기 ‘토지문학공원,’” 『하이데거 연구』 제15집(서울: 한국하이데거학회, 2007).
- 최병우,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두만강의 형상과 그 함의,” 『현대소설연구』, 제39호(서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 최유찬, “『토지』의 성립과 판본의 변이 양상,” 『토지의 문화지형학』(서울: 소명출판, 2004).
- _____, “빅뱅이론과 생명사상으로 읽은 박경리의 토지,” 『말』, 통권 126호(서울: 월간 말, 1996).

3. 국외 자료

박청산·김철수, 『이야기 조선족력사』(연변: 연변인민출판사, 2000).

Image Geographical awareness and mental map of ‘Gando’ configured in Historical novel North and South Korea

Lim, Okkyu(DanKook University)

A purpose of this article makes a searching examination whether no matter how much an experience of the history that Korea race for the Japanese occupation by well watching recognition of the imaginative geography that a ‘Gando’ area built in places made a figure by Historical novel North and South Korea. In addition, I build ordinary guidance by place movement in an individual historical novel and try to be going to realize Mental map of Gando in a base by imaginative geography of a Gando area.

Imaginative geographical recognition of Gando tries to be analyzed through the historical novel that Gando becomes a main spatial background. Place movement makes ends meet frequently and Gando is common and appears in these historical novels at a main activity place

of characters. Ordinary geographical recognition of Gando done a figure of by Historical novel North and South Korea tries to be made a type. It tries to be sorted imaginative geographical recognition of Gando through field feeling to recognize Gando in space of a utopia. It is watched a movement course of Korea race and main activity contents well if I try to build ordinary guidance in Historical novel North and South Korea around a place. I can show possibility that it tries to be elaborated a plan by ordinary guidance of Korea Peninsula through this.

Keywords: historical novel North and South Korea, imaginative geography, Mental map, Gando, *Togi*, *Tuman River*, *North Gando*